인문연구 제91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1, No. 5, pp.127~166
http://dx.doi.org/10.21211/JHUM.91.5

조르주 상드의 문학비평 : 서간집을 중심으로*

윤형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상드의 공개적 비평
3. 상드의 소설 비평
4. 상드의 시 비평
5. 상드의 연극 비평
6. 나가는 말 : 상드의 서간문에 나타난 비평담론의 유형과 비평관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표는 조르주 상드가 여러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썼던 비평적 글을 분석함으로써 상드의 비평관과 문학관, 상드 문학비평의 특징을 규명함에 있다. 우선 상드의 공개적 비평 활동에 대해 시기 별로 살펴본 후, 상드가 특정 작가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 속에 나타난 비평담론을 분석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433)

** 경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는 생트 뵈브, 샤를 퐁시, 플로베르에게 보낸 비평담론을 주로 분석했으며, 상드가 소설, 시, 희곡과 연극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적용한 규준이 무엇인가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상드의 서간적 비평담론의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었던 다른 비평가들의 비평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담론의 유형, 두 번째 장차 자신이 쓰게 될 비평기사의 내용을 준비하는 사전 텍스트의 기능을 띠는 생성적 담론의 유형이다.

다음으로 상드의 비평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상드는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문학의 사명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두 번째, 상드는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을 배려하는 관대하고 호의적인 평론을 주로 썼다는 점이다. 세 번째, 상드가 많은 작가들에게 서신으로 비평담론을 보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 작가가 더욱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기여하고 지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조르주 상드, 문학비평, 서간집, 편지, 상드의 공개적 비평, 소설 비평, 시 비평, 연극 비평, 비평담론의 유형, 조르주 상드의 비평관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표는 조르주 상드George Sand가 여러 작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썼던 비평적 글을 분석함으로써 상드의 비평관과 문학관, 상드 문학비평의 특징을 규명함에 있다. 조르주 상드는 작가가

된 이후,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글을 쓰며 비평 활동을 병행했다. 상드는 샤를 퐁시Charles Poncy[1]를 비롯한 노동자 시인들을 지지했으며, 플로베르Flaubert의 소설들을 변호하는 평론을 쓰고[2], 1853년 Houssiaux 출판사에서 간행했던 발자크Balzac의 『인간희극 *La Comédie humaine*』에 서문을 쓰기도 했다.[3] 발자크가 상드에게 『인간희극』을 위해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점, 플로베르가 『감정교육*L'Éducation sentimentale*』에 대한 비평가들의 혹평으로 시련을 겪던 중 상드에게 비평을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상드는 당대의 유명작가들에게도 권위 있는 비평가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 작가들 중에서도 조르주 상드는 소설가이자 세계 제일의 서간문학가로서 평생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편지로 교류하며 3만 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 상드 연구가인 조르주 뤼뱅Georges Lubin에 의해서 1965년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차례차례 출간되었던 26권의 방대한 『조르주 상드 서간집 *George Sand-Correspondance*』은 살아 있는 19세기 인명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편지에는 위고Hugo, 발자크, 생트 뵈브Sainte-Beuve, 뮈세Musset, 뒤마 피스Dumas fils, 샤를 퐁시, 플로베르, 공쿠르 형제Frères Goncourt 등 19세기 프랑스 작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편지에서 다뤄진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문학에 관

---

1) 석공을 직업으로 가진 노동자 시인(1821-1891). 독학을 하며 스무 살에 발표한 『선원들*Les Marines*』이란 시집으로 이름이 알려진다.

2) 『마담 보바리*Madame Bovary*』를 막 출간하고 이 소설에 대한 평단의 비판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플로베르를 위해 상드는 한 잡지에 이 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비평의 글을 게재한다. 몇 년 후인 1863년 상드는 플로베르의 신작소설 『살람보*Salammbô*』에 대한 예찬의 비평을 또 잡지에 기고한다.

3) 상드와 발자크는 1831년부터 1844년까지 교류했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32통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편지에서 문학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두 작가는 편지보다는 실제의 만남에서 주로 문학토론을 했다.

한 주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드의 편지들은 서간 문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작가들이 편지를 남기고 그것이 책으로 묶여 나왔지만 양과 다양성, 진실성에서 상드의 편지는 압도적이다. 상드 편지의 특징들로는 첫째, 방대함과 다양성, 둘째, 솔직함과 진실성, 셋째, 지속성을 꼽을 수 있다. 상드의 문학비평을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상드가 편지를 통해 19세기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진실하며 지속적인 비평을 했는가를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각 장르에 대한 상드의 비평관과 문학관이다. 편지는 공식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작가 자신의 문학관이 더 솔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문학 장르에 대한 비평을 하기 위해 상드가 적용한 비평 규준과 상드 비평의 종합적인 특징을 고찰해볼 것이다.

2. 상드의 공개적 비평

이 장에서는 상드의 공개적인 비평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정적 소설, 사회주의적 소설, 전원소설, 콩트,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백 편 이상 발표했던 조르주 상드가 당대의 문학계에 미친 영향,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드가 잡지 창간에도 기여하며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면서 남겼던 업적 등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상드의 비평 활동은 19세기의 문학사에서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4] 그러나 그 시기에는 여성

4) 상드의 공개적 비평 활동에 대해서는 Christine Planté 외 여러 연구자들이

작가들이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학에 대해 권위적인 글을 발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5] 살롱 문학의 전통이 사라진 이후 여성 작가는 지적인 비평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상드는 이런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활발한 비평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혼 이후 상드는 문필 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스탈 부인Madame de Staël과는 다른 비평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상드는 1831년 〈르 피가로*Le Figaro*〉지에 첫 기사를 씀으로써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832년 『앵디아나*Indiana*』의 성공으로 그녀는 문학계에서 일약 유명인사가 된다. 이후 그녀는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잡지들 중 하나였던 〈양 세계 잡지*La Revue des deux mondes*〉에 연재소설을 잇달아 발표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론을 쓰면서 소설가로서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양 세계 잡지〉의 발행인인 프랑수아 뷜로즈François Buloz와의 불화로 인해 이 잡지에 작품과 글을 기고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상드에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상드는 1841년에 피에르 르루Pierre Leroux와 함께 〈독립 잡지*La Revue indépendante*〉

공동집필한 *George Sand critique, 1833-1876* 중 2부 "Moments critiques"를 참조했다. *George Sand critique, 1833-1876,* Éditions Du Lérot, 2007, pp. 81-131.

5) 그렇다고 해서 여성 작가의 비평 활동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상드 이전에 스탈 부인Madame de Staël이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을 소개하면서, 여성도 문학사와 문학 이론에 관해 글을 발표하고 문학비평 활동을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탈 부인은 17세기와 18세기에 유행했던 귀족 부인들의 살롱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작가이다. 하지만 문학애호가들인 박식한 몇몇 여성들에 의해서 문학작품이 그 가치를 부여받고 전파되던 살롱 문학의 전통은 프랑스 혁명 이후 사라지게 된다.

를 창간한 것이다. 이후 상드는 문학과 정치에 관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맘껏 쓸 수 있는 지면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19세기에 여성 작가들에게는 잡지에 정기적인 문예 비평을 쓸 기회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드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비평가로서의 독창성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했다. 즉 그녀는 당대 남성 비평가들의 방식이었던 이론적이고 교조적인 비평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비평을 시도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상드는 *Autour de la table*[6]이란 상상적 대화 방식의 문학토론과 비평을 시도했다. 이 비평 방식은 독자들과 탁자에 마주 앉아 문학에 관해 토론하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비평가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관점과 주장만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방식이다. 이런 독창성에 힘입어 상드는 여러 신문사와 잡지사, 작가들로부터 서평과 비평,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상드는 〈민중시인들〉, 〈이상주의자 라마르틴〉, 〈장-자크 루소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 생트 뵈브〉, 〈예술, 공화국의 연극, 오페라의 연극〉, 〈이탈리아의 희극〉, 〈사실주의〉, 〈빅토르 위고〉, 〈감정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평론을 여러 지면에 발표한다. 이 외에도 상드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위한 서문을 쓰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샤를 퐁시의 시집 『공사장*Le Chantier*』, 세낭쿠르Senancour의 『오베르만Oberman』, 발자크Balzac의 『인간희극*La Comédie humaine*』 등을 위한 서문을 들 수 있다.

---

6) 이 비평집에는 괴테Goethe, 바이런Byron, 미키에빅스Mickiewicz의 환상적 희곡에 대한 비평, 발자크의 작품에 대한 비평, 미국 작가인 스토우 Harriett Beecher Stowe 부인의 『엉클 톰의 오두막*La case de l'oncle Tom*』, 화가이며 시인인 외젠느 프로망탱Eugène Fromentin의 작품인 *Un été dans le Sahara*와 *Un été dans le Sahel*에 대한 비평 등이 수록되어 있다. George Sand, *Autour de la table,* Hachette Livre BNF, 2012 참조.

전문적인 비평가는 아니었던 조르주 상드는 신문과 잡지에서 다양한 비평을 발표했지만 문학계에서는 비평가로서의 활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드의 문학비평은 규범적인 비평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을 경청하는 비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드는 비평 활동을 하면서 동시대의 작가들을 다양하게 탐구하기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데 특히 작가들의 작품을 옹호하는 비평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했다. 상드는 1833년 세낭쿠르의 『오베르만』에 대한 비평부터 1869년 플로베르의 『감정교육*L'Éducation sentimentale*』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다양한 작품에 대한 비평 활동을 했다. 상드의 비평 담론은 자서전, 서신, 서문,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던 다양한 비평기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드가 〈양 세계 잡지〉에 발표했던 세낭쿠르와 생트 뵈브의 작품에 대한 소설비평은 상드의 초기비평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생트 뵈브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로 시작됐지만 이 글들은 더욱 더 논술적인 비평으로 발전한다.

1840년에서 1848년의 기간 동안에는 〈독립 잡지〉에 글을 게재했는데, 이 시기는 상드가 정치적 참여를 하면서 비평을 했던 제2기라 볼 수 있다.[7] 상드 비평의 3기는 1852년에서 1863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상드는 발자크의 『인간희극』에 서문을 썼고, 『엉클 톰의 오두막*La case de l'oncle Tom*』, 『마담 보바리*Madame Bovary*』, 『살람보*Salammbô*』 등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여러 잡지에 게재했다.[8]

3기에 이르러 상드는 주로 소설에 대한 비평기사를 발표했다.

---

7) Claire Barel-Moisan, "George Sand face au genre romanesque : Sainte-Beuve, Balzac, Flaubert" in *George Sand critique, 1833-1876,* op. cit, p. 206 참조.

8) *Ibid.,* p. 206 참조.

이런 비평에서 상드는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권위적이고 위엄 있는 어조와 논증적인 문체로 글을 썼다. 상드는 소설비평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현학적인 비평, 특히 소설 장르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비평을 지양했다. 작품을 비판하는 엄정한 비평가라는 양상을 취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상드 소설비평의 특징이다. 규범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상드는 소설 창작의 어떤 방식들이 그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기존의 소설 창작 원칙과는 상관없이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드는 소설의 형식이란 당대의 양식과 부합하는 일종의 의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품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어떤 작가가 창작한 양식이 자신의 작품과 부합하는 명확한 형식을 보여준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 된다고 보았다.[9)]

이상으로 상드의 공개적 문학비평 활동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상드가 특정 작가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 속에 나타난 비평담론을 분석해볼 것이다. 상드가 긴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편지로 비평 담론을 주고받은 작가들로는 생트 뵈브, 샤를 퐁시, 플로베르 등이 있다. 우리는 이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상드의 서간적 비평을 문학의 주요 장르인 소설, 시, 희곡과 연극에 대한 비평으로 각각 분류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3. 상드의 소설 비평

이 장에서는 상드가 편지 속에서 생트 뵈브와 플로베르의 소설의 주제와 구성, 작중인물, 문체 등에 대해서 비평한 내용을 분석

9) *Ibid.*, pp. 208-209 참조.

하며 상드의 소설비평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830년 초, 상드와 생트 뵈브는 각자 소설을 발표한다. 상드는 1833년에 『렐리아*Lélia*』를, 생트 뵈브는 1834년에 『쾌락*Volupté*』을 발표하며,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비평을 쓰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생트 뵈브는 1833년 9월 29일에 *Le National* 지에 『렐리아』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고, 상드는 1834년 7월 24일에 『쾌락』에 대한 비평담론을 담은 편지를 생트 뵈브에게 보낸다. 두 작가의 관계는 생트 뵈브가 1845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기념사를 발표했을 때 이 글에 대해 상드가 보고서를 씀으로써 더욱 친밀해지게 된다.

1834년 7월 24일, 생트 뵈브의 심리분석적 소설인 『쾌락』에 대한 비평담론을 담은 편지에서 상드는 소설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이 작품이 보여준 구조의 단순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야기의 순서와 진행, 이야기의 연결과 발전은 필수적인 명확성과 더불어 전체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이뤄진 점,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모든 인물들을 그려낸 점 또한 호평한다 :

> 내 감정대로, 내 호감대로 얘기하자면, 『쾌락』은 완벽한 작품이라고 말하겠어요. (…) 순서, 진행, 연결, 전개, 결말이 감탄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고 투명하고 필연적으로 잔잔하고 소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고귀할 정도로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10]

---

10) "Si je me laissais aller à mes émotions et à mes sympathies, je vous dirais que *Volupté* est une œuvre parfaite. (…) L'ordre, la marche, l'enchaînement, le développement, le dénouement sont dans leur cours paisible et simple, d'une évdence, d'une clarté, d'une nécessité admirables. Les caractères sont d'une pureté et d'une beauté sublimes.", *Correspondance de George Sand,* Textes réunis, classés et annotés par Georges Lubin, Tome I-Tome XXV, Paris, Éditions Garnier Frères, 1964-1991. t. 2. p. 709. *Correspondance de George Sand*는 이하

그러나 문체 면에 있어서는, 생트 뵈브가 지나치게 세련된 문체를 구사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적절한 단어와 부적당한 비유, 해설적인 표현들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상드가 지적하는 이 소설의 가장 큰 결점은 서정적인 부분이 너무 길고 자주 반추된다는 점이다. 상드는 평상시 작품의 단점을 지적하는 비평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쾌락』의 미학적 결점으로, 이 작품의 문체가 너무 화려하면서 가끔 부정확하기까지 한 점, 독실한 신자들에게만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다룬 점 등을 비판한다.

> 난 당신의 문체가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문체가 허술해서도 짜임새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당신의 문체는 항상 열정적이고 힘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내 생각으로는 부적절한 단어와 부적당한 비유, 그리고 너무 해설적인 표현들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비유들은 하도 과장되고 모호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첨가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 내가 당신에게 지적하고 싶은 가장 커다란 결점은 『쾌락』의 서정적인 부분, 성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아름다운 장에 있어요. 또한 그 장들은 너무 길고 너무 자주 반추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화려하고 표현이 풍부한, 종종 부정확하고 이상한 이런 문체가 나머지 부분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오히려 문체에 맥이 빠져버려요.[11]

---

*Correspondance*로 표기함.

11) "Je trouve le vôtre (le style) trop peu sévère. Ce n'est pas qu'il soit négligé ni lâche, tant s'en faut. Il est toujours chaud et vigoureux. Mais selon mes idées actuelles il donne accès à trop de mots impropres, à trop d'images qui toutes ne sont pas justes, à des tournures de phrases trop obstinément explicatives. L'un de ces défauts me semble la conséquence inévitable de l'autre. (…) C'est dans la partie lyrique de *Volupté,* dans les beaux chapitres à la manière de Saint Augustin, que je trouve le plus des défauts que je vous reproche. Je trouve aussi ces chapitres trop longs et trop souvent

최종적으로 이 소설은 일부 독자들, 말하자면 독신자에게만 유익할 것이라고 평하며 이 점을 아쉽게 여긴 상드는 생트 뵈브에게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책을 써야한다'라고 충고한다.

> 지금은 최초의 구상과 주제의 선택에 관해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내게 슬픔과 좌절만 남겨놓았어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그 해답을 찾은 듯싶어요. 이 소설은 너무 특수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흥미와 매력을 끌 테지만, 독신자에게만 유익할 듯싶어요. 독신자는 가톨릭 집단처럼 지식인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모든 지식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래요. (…) 친구여, 당신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책을 써야 해요.[12]

상드는 사회적 염세주의의 내용 즉, 사회에 대한 절망, 사회의 진보를 부정하는 사상을 싫어했다. 이런 관점에서 상드는『쾌락』을 비판하며, 특히 아모리Amaury와 쿠아앵M. de Couaën이 종교

---

ramenés. (…) je sais, dis-je, que ce style abondant, onctueux et souvent incorrect et singulier, des réflexions, jette sur le reste un grand effet de réalité. Mais c'est un cadre un peu rembruni et qui devient morne à force de persévérence dans les idées.", *Ibid.,* pp. 712-713.

12) "Je m'en prends maintenant aux idées premières, au choix du sujet, et en cela il ne m'a laissé que tristesse et de découragement. J'ai cherché longtemps pourquoi et peut-être l'ai-je enfin trouvé. C'est un livre trop spécial. Il intéressera et charmera tout le monde, mais il ne sera vraiment utile et profitable qu'aux dévots. C'est une bien petite fraction du monde intelligent, que la fraction catholique, et je voudrais qu'une si belle œuvre pût donner secours à toutes les intelligences. (…) mon ami, il faut que vous fassiez un livre qui change, et qui améliore les hommes.", *Ibid.,* pp. 710-712.

를 위로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의 결말과는 다른 결말을 제안했다. 상드는 소설의 구조에 따라서 사회 현실의 다양성을 더 사실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작품 전체와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드는 소설에 대한 비평을 시작하면서 특히 문학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성에 주목했다. 상드는 소설을 비평하면서 항상 이 질문을 제기했다. 상드는 소설미학의 관점으로 볼 때 『쾌락』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며, 특히 구성의 완성도가 탁월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예술의 사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드는 이처럼 문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자주 강조한다. 상드가 어떤 작품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작품을 다 읽은 독자의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점과 이 독서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점이다. 상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강한 인상을 주는 어떤 문장들이나 유려한 문체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힘과 그것의 상징적인 위상이다. 즉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상드의 소설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상드가 플로베르의 소설에 대해 비평적 담론을 보낸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상드의 소설 비평의 또 다른 특징을 분석해보자. 두 작가는 1866년부터 1876년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43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작가나 예술가의 과제와 임무, 나아가 문학과 예술의 본질 및 역할과 관련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 상드가 플로베르에게 편지로 비평 담론을 보낸 작품들로는 『마담 보바리』, 『감정교육』, 『살람보』가 있다.

1866년 9월, 상드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읽고 삶의 구석구석을 대가의 솜씨로 그려냈다고 평하며 플로베르가 훌륭한 작가임

을 인정한다.[13] 상드는 플로베르가 1869년 11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감정교육』에 대한 평단의 혹평을 예상하고 미리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글을 보낸다. 상드는 감히 시샘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플로베르가 특출한 작가이며, 공격자들로 인해 더욱 자극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작가라고 말한다. 『감정교육』은 분명 비평계를 시끄럽게 할 것이지만 진정한 진보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이 소설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플로베르를 위로한다.[14] 『감정교육』 출판을 전후해서 상드와 플로베르가 주고받은 비평담론에는 비평가로서의 상드의 역할이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위로자, 충고자, 지원자의 역할이다. 상드는 플로베르에게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적 견해를 주고받기를 제안하면서, 비평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이 편지에서 상드는 작가들이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각자의 문학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자신의 비평관을 잘 보여준다.[15] 상드가 『살람보』에 대한 평론가들의 많은 혹평에

---

13) "Et cependant on fait des *Bovarys* où tous les petits recoins de la vie sont étudiés et peints en grand maître. Quel drôle de corps qui fait aussi le combat du Sphinx et de la Chimère ! Vous êtes un être très à part, très mystèrieux, doux comme un mouton avec tout ça.", *Gustave Flaubert-George Sand, Correspondance,* Texte édité, préfacé et annoté par Alphonse Jacobs, Paris, Flammarion, 1981. pp. 75-76. *Gustave Flaubert-George Sand, Correspondances*는 이하 *GFGS*로 표기함.

14) "Ton sujet va être tout à fait de circonstance en ce moment de Regimbards. Les bons progressistes, les vrais démocrates t'approuveront. Les idiots seront furieux, et tu diras : vogue la galère !", *Ibid.,* pp. 251-252.

15) "Apportez l'exemplaire. Mettez-y toutes les critiques qui vous viennent. Ça me sera très bon, on devrait faire cela pour les uns et pour les autres, comme nous faisions Balzac et moi. Ça ne fait pas qu' se change l'un l'autre au contraire, car en général on s'obstine davantage dans son moi. Mais, en s'obstinant dans son moi, on le

대해서 플로베르를 변호하기 위해 신문에 평론을 써준 이유도 바로 그가 재능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더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16]

상드의 비평담론의 특징 중 하나로 작가를 변호하는 글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플로베르의 『살람보』에 대한 한 비평가의 혹평을 읽은 상드는 1863년 2월 17일 뷜로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글이 『살람보』의 장점은 버리고 단점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한다. 비평의 진정한 사명은 작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상드는 주장한다. 비평이란 문학의 현실적인 면과 이상적인 면을 연결시키는 제3의 타협점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간파해야 하는데 이 혹평은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음을 질타한다. 이 편지에서 상드는 당대의 비평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 대체로 당신 잡지의 비평은 혹평이에요. (…) 비평보다 생명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어요. 비평의 진정한 사명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당신네 비평이 뭐라 하든 모두들 플로베르가 독창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 나는 지금 예술가로서 공평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 안에서 이쪽 것이 저쪽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사실 그런 모순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

complète on l'explique mieux, on le développe tout à fait, et c'est pour cela que l'amitié est bonne, même en littérature, où la première condition d'une valeur quelconque est d'être soi." *Ibid.,* p. 64.

16) 플로베르의 작품들에 대해 충고하고 지지하는 상드의 비평담론에 대해서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윤형연, 「『상드-플로베르 서간집』을 통해서 본 두 작가의 문학세계 (2)」, 『프랑스학 연구』, 제 77집, 2016, pp. 165-168 참조.

제 3의 타협점이 있는데, 어떠한 비평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평은 아직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대체로 해내는 일보다 잡음이 더 많은 거예요.[17]

소설 창작 방식에 관해서 상드는 플로베르의 비개인성 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한다. 상드는 작중 인물을 창조할 때 작가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한다.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인물은 사랑, 부, 쾌락 등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작가가 나름대로의 철학이 없다면 인물들은 작품 속 사건에 지나치게 지배되며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인물들에게 작가의 생각을 투영해야 할까, 혹은 전혀 투영하지 않아야 할까? 상드는 이 질문을 플로베르에게 던진다.

당신은 문학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미학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조가 결여된 것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철학을 품으면 반드시 표면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 예술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그림이라면 무엇보다 혼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고, 그 혼이 붓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예술은 단순히 비판이나 풍자가 아니에요. 비판과 풍자는 진실의 한 면만을 그릴 뿐이에요. (…) 내가 보기에 당신네 유파는 사물의 본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형식만 추구한 나머지 본질을 경시하게 되고 지식층에게만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식층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든 어떠한 사실이든 그 본질에서 인간을 찾기를 원해요. 『감정교육』의 결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잘 썼고 내용도 충실한 작품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게

17) Lettre à François Buloz, 2 septembre 1863, 이재희 옮김, 『상드 서간집 2』, 성지사, 1999, p. 410.

> 여겨지는 것인지 자문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결함이란 바로 인물들의 스스로에 대한 행동의 부재였던 거예요. 인물들은 사건을 겪지만 그 사건을 결코 독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18]

상드는 이 편지에서 삶에 대한 플로베르의 관점이 편협하고, 확고한 신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인용문에서 상드가 강조하는 '신조'란 바로 세상에 대한 작가의 균형적인 철학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드는 우선 플로베르가 삶에 대해 나름대로의 신조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충고한다.[19] 다음으로 그녀는 소설가의 의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소설가는 삶에 대한 단순한 풍자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더 나아가서

---

18) "Je sais que tu blâmes l'intervention de la doctrine personnelle dans la littérature. As-tu raison? N'est-ce pas plutôt manque de conviction que principe d'esthétique ? On ne peut pas avoir une philosophie dans l'âme sans qu'elle se fasse jour. (…) L'art n'est pas seulement de la peinture. La vraie peinture est, d'ailleurs, pleine de l'âme qui pousse la brosse. L'art n'est pas seulement de la critique et de la satire : critique et satire ne peignent qu'une face du vrai. (…) Il me semble que ton école ne se préoccupe pas du fond des choses et qu'elle s'arrête trop à la surface. À force de chercher la forme, elle fait trop bon marché du fond, elle s'adresse aux lettrés. Mais il n'y a pas de lettrés proprement dits. On est homme avant tout. On veut trouver l'homme au fond de toute histoire et de tout fait. Ç'a été le défaut de *l'Éducation sentimentale,* à laquelle j'ai tant réfléchi depuis, me demandant pourquoi tant d'humeur contre un ouvrage si bien fait et si solide. Ce défaut, c'était l'absence d'action des personnages sur eux-mêmes. Ils subissaient le fait et ne s'en emparaient jamais. Eh bien, je crois que le principal intérêt d'une histoire, c'est ce que tu n'as pas voulu faire.", *GFGS,* p. 511.

19)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에 대한 상드의 비평담론은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에서 분석한 바 있다. 윤형연, 「『상드-플로베르 서간집』을 통해서 본 두 작가의 문학세계」, 『프랑스문화연구』 제 32집, 2016, p. 98 참조.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인 뉘앙스를 간파하고 작품 속에서 그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작가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상에 대해 자신이 느낀 종합적인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드의 소설 미학이다.

상드 소설 비평의 특징은 작품에 관해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사상의 문제로 순수하게 문학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각 작품이 독자에게 신뢰로 가득 찬 삶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내용을 보여주는가에 중점을 두는 관점이다. 즉 문학은 인생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상드의 소설 비평에는 예술의 사명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글이 많다는 것이다. 1866년 10월 1일의 편지에서 상드는 작가의 사명과 보람은 무엇보다 독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 그리고 현재가 메마르고 삭막할지라도, 대중에 대한 모든 영향력과 신용을 잃었다 해도 미래를 밝혀주는 방책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존심이 입은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어줄 거예요. 살다보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당장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그것이 선의와 선행의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말 거예요.[20]

---

20) "Et, si le présent est stérile et ingrat, si on perd toute action, tout crédit sur le public, en le servant de son mieux, reste le recours à l'avenir, qui soutient le courage et efface toute blessure d'amour-propre. Cent fois dans la vie, le bien que l'on fait ne paraît servir à rien d'immédiat ; mais cela entretient quand même la tradition du bien vouloir et du bien faire, sans laquelle tout périrait.", *GFGS.,* p. 84.

작가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글이 독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상드의 문학관이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상드가 생트 뵈브와 플로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몇 가지 비평담론들을 통해서 소설 장르에 있어서의 상드의 비평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설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평범한 수많은 독자들, 배우거나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무지한 독자들을 위해 항변하는 것이 곧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작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상드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 독자에 대해 특별한 관점과 애정을 보여준 작가이다. 둘째, 상드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높이 산다는 점이다. 셋째, 지나치게 해설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고 명확한 문체를 권고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작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글이 올바른 비평이라는 비평관을 보여준다.

4. 시 비평

이 장에서는 상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여러 방식으로 후원하고 격려했던 노동자 시인인 샤를 퐁시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 나타난 비평담론을 분석하면서 민중시와 민중시인에 대한 상드의 관점을 고찰해볼 것이다. 1830년에서 1850년 사이에 낭만주의자들의 주장 덕분에 민중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다. 교육, 문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민중이란 주제가 부각되며, 이에 힘입어 민중시라는 장르가 발전한다. 많은 낭만주의 작가들이 민중시를 찬양하고 지지하며 민중시인들에게 문학적 충고를 하거나, 작품 출판을 위한 경

제적 지원을 한다.[21] 여러 작가들 중에서도 상드는 민중시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드는 민중시인들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시인 등으로 명명하면서 그들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기도 한다. 민중시 창작과 민중시의 이론은 상드와 민중시인들이 서로 정신적으로 교감하면서 주고받은 편지들 덕분에 더욱 발전하게 된다.[22] 상드는 민중시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화의 형식을 취하며 민중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하는데, 이 편지들은 상드 시 비평의 주요한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1842년 4월에 퐁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상드는 퐁시의 시집 『선원들*Les Marines*』에 대한 관심을 그에게 전해주었으며, 1876년 상드가 사망할 때까지 두 사람의 우정은 지속되었다. 상드와 퐁시가 주고받았던 편지들은 퐁시의 작품 내용뿐만 아니라 민중시에 대한 상드의 관점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상드의 편지에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교육을 위해 그녀가 외쳤던 주장과, 젊은 시인을 교육하고자 하는 모성성이 잘 나타나 있다. 상드의 지원에 힘입어 퐁시는 시인의 사명이라는 목표를 다지게 되며, 온유한 태도로 상드가 권유하는 문학적, 도덕적 가르침을 따른다.

1842년 4월 27일에 상드는 퐁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첫 시집인 『선원들』을 위해 서문을 써주었던 작가는 퐁시를 제대로

---

21) Nathalie Vincent-Munnia, "George Sand et les poètes populaires : une conversation critique", in *George Sand critique, 1833-1876,* op. cit., p. 135 참조.

22) 상드와 편지를 주고받은 민중시인들로는 제롬 질랑Jérome Gilland, 사비니앵 라푸앵트Savinien Lapointe 등이 있다. 상드는 자물쇠 수리업공인 제롬 질랑의 시집 『노동자 이야기꾼*Les Conteurs Ouvriers*』의 서문을 썼다. 조르주 상드를 예찬했던 가죽세공업자인 사비니앵 라푸앵트의 시집으로는 *Une voix d'en bas, Les Échos de la Rue*가 있다.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잘못된 충고와 얄팍한 찬사를 퍼부었다고 지적하며, 다음 시집에는 상드 자신이 서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다.

> 당신 시집의 서문을 쓴 그 작가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을 감사한 마음에 흠을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작가는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잘못된 충고와 얄팍한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대중에게 당신에 관해 말하는 입장이라면 그보다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새 시집을 펴내게 되면, 내가 당신의 편집자가 될 수 있는 영광과 아울러 서문을 쓸 수 있는 배려를 베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23]

이 편지에는 민중시에 대한 상드의 관심과 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상드는 시인이란 무엇보다 진보와 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그러니 민중의 아들이여, 조심하세요 !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원대한 사명을 띠고 있어요. 맞서서 견뎌내세요. 형제들의 신성한 대의를 저버리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세요. 신은 당신에게 그토록 뛰어나고 빛나는 지성을 주심으로써 인류의 대의와 미래의 안녕을 위해 힘쓰도록 명하신거지요. … 부자의 아들은 천성적으로 부패하기 쉽지만, 민중의 아들은 더 강하고, 그의 야망은 허영과 안일의 유치한 쾌락보다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어요. 친애하는 퐁

23) "Je ne veux pas altérer en vous la sainte reconnaissance que vous portez sans doute à l'auteur de votre préface ; mais ce bon homme ne vous a pas compris. Il a eu peur de vous. Il vous a donné de mauvais conseils et de pauvres louanges. Quand je parlerai de vous au public, j'espère en parler un peu mieux. Quand vous ferez un nouveau recueil, je vous prie de me prendre pour votre éditeur et de me confier le soin de faire votre préface." *Correspondance,* t. 5, p. 642.

> 시, 당신으로 하여금, 가시 면류관이여, 너는 왜 나를 불태우려 하는가?, 라고 외치게 하던 그 전율을 잊지 마세요.[24]

상드는 사회적 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민중시인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민중시인이란 민중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 시를 창작할 수 있는 재능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진보적인 사람으로 설명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상드는 민중시는 다른 형식의 시들, 말하자면 개인주의에 속하며 결코 유용하지 않은 다른 시들과 구분된다고 본다. 상드가 퐁시의 시를 비평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는 민중들에게 유용하고 민중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1843년 2월 26일에 퐁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드는 민중시인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 (…) 당신은 당신의 노동자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 역할을 갈망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지성으로 그 역할을 시작했으니 이제 숭고한 덕행으로 끝맺음을 할 거예요. 확신이 없는 덕행은 없어요. 검토와 숙고가 없는 확신도 없어요. 당신의 젊은 혈기를 잠재우세요. 당신의 상상력을 식히지 말고 그것을

---

24) "Prenez donc garde, noble enfant du peuple ! vous avez une mission plus grande peut-être que vous ne croyez. Résistez, souffrez ; subissez la misère, l'obscurité, s'il le faut, plutôt que d'abandonner la cause sacrée de vos frères. C'est la cause de l'humanité, c'est le salut de l'avenir, auquel Dieu vous a ordonné de travailler, en vous donnant une si forte et si brûlante intelligence. … Mais non ! le fils du riche est de nature corruptible ; l'enfant du peuple est plus fort, et son ambition vise plus haut qu'aux distinctions et aux amusements puérils du bien-être et de la vanité. Souvenez-vous, cher Poncy, du mouvement qui vous fit crier : Pourquoi me brûles-tu, ma couronne d'épines ? C'était un mouvement divin." *Ibid.*, p. 642.

당신의 조국인 하늘을 행해 내뻗으세요.[25]

상드는 민중의 개념에 있어서의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순박함, 신선함, 단순함 등 전통적인 민중의 개념과, 해방, 주장, 진보 등 19세기 중반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민중의 개념이다. 상드는 퐁시의 시를 읽고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기적적인 민중의 초상을 그리며, 퐁시를 인류가 꿈꾸어왔던 해방의 선구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양상은 궁극적으로 상드가 퐁시와 같은 민중시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인의 사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이며, 상드의 민중시 비평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해요.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재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내부에 움튼 다소의 지식을 자기 동료들에게 깨우쳐 줄 권리와 의무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인은 감정에 관한 임무가 있고, 그 임무는 아름답고 훌륭한 거예요. 시인이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기 안에서 정성을 들이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은 감정이고, 그 다음이 형식이에요.[26]

---

25) "C'est alors vraiment que vous évangéliserez vos frères les travailleurs, et que vous ferez d'eux d'autres hommes. Aspirez à ce rôle que vous avez commencé par votre intelligence et que vous ne finirez que par une haute vertu. Point de vertu sans certitude ; point de certitude sans examen et sans méditation. Calmez votre jeune sang, et, sans refroidir votre imagination, portez-la vers le ciel, sa patrie !", *Correspondance,* t. 6, p. 69.

26) "Il faut que notre cœur et notre esprit travaillent toujours, car quiconque aime et pressent la vérité, a le droit et le pouvoir d'initier ses semblables à quelque parcelle de luimière éclose dans son sein. Les poètes ont une mission de sentiment, elle est belle et bonne, et ce qu'ils ont à soigner et à développer en eux-mêmes pour être utile, c'est d'abord le sentiment puis la forme.", *Ibid.,* p. 194.

상드는 퐁시에게 형식에 치중하지 말고 노동자의 현실을 그리는 사실적인 내용을 쓰라고 충고하며 도덕적인 역할과 함께 신의 진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844년 1월 26일의 편지에서는 퐁시가 현재에 충실한 시인이며 철학자임을 인정하며 그를 격려하는 글을 보낸다 :

>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암울한 시대가 있어요. 적어도 진리가 지배하지 않는 시대. (…) 당신은 현재에 충실한 시인이에요. 당신은 폭풍우의 본성과 공포, 인간의 고통을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진리에 충실한 시인이기도 해요. 그 불행과 폭풍우 너머로 신의 섭리가 펼치는 구상, 신이 약속하는 미래, 신이 품고 있는 덕의 씨앗, 신이 동경하는 이상세계를 보는 철학자예요.[27]

1842년 8월 24일에 보낸 편지에서 상드는 퐁시의 두 번째 시집인 『공사장*Le Chantier*』에 수록된 몇 편의 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평을 하고 있다. 우선 퐁시의 사상에 논리성과 상징성이 더해졌다고 호평한다. 그러나 언어의 부정확성이나 당대의 작가들이 남용하는 낭만적인 표현과 적절치 못한 은유나 순수하지 못한 표현양식을 지적한다. 더불어 퐁시에게는 아직 감식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

27) "Il est de tristes époques où la vérité n'est pour ainsi dire pas dans ce monde (…) Le poète de réalité vous l'êtes, vous peignez admirablement bien la nature et les horreurs de la tempête et les souffrances de l'humanité : mais vous êtes aussi le poète de vérité, le philosophe qui voit au-dessus de ces maux et de ces tempêtes, les desseins providentiels de Dieu, l'avenir dans ses promesses, la vertu dans son germe, l'idéal dans sa propre aspiration.", *Ibid.,* p. 411.

어떤 점에서는 당신은 그동안 진보를 하셨더군요. 사상에 논리성과 상징성이 더해졌고, 더 완전해졌어요. 하지만, 내 충고를 따를 것을 어머니 같은 솔직함과 권위로 당신에게 일러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형식과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당신의 시집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 한 면 한 면마다 드러나 있는 놀라운 영감과 본유성, 그리고 넘치는 재능을 주로 주의 깊게 보았어요. 물론, 한 장 한 장마다 언어의 부정확성이나 적절치 못한 은유나 순수하지 못한 표현 양식도 눈에 띄었어요. (…) 젊고 열정적인 시인들이 흔히 그렇듯이, 당신도 감식안이 부족하세요. 그 감식안이란 것은 워낙 미묘해서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도 없고, 어디에 그 감식안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결코 예술도, 참다운 시도 없어요. 당신에게 그것이 전혀 없다면 당신에게 이런 충고도 못 드릴 거예요. 충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단어의 선별을 염두에 두라고 충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시에 그런 감식안이 충분히 넓게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분야에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소상히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틈새로 끝나는 네 개의 행은 아주 대담한 비유이면서도 정확하고 멋진 표현이에요. 하지만, 대담한 신어 창조로, '비틀거리며 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생생하게 표현할 때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물질적인 것을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대신, 비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어요. 바로 감식안이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웅장한 장면만을 그리고 있어요. 웅장한 것에 그만 매달리세요. 당신은 자연의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시죠. 좀 자연스러워지세요.[28]

---

28) "Je vois qu'à certains égards, vous avez progressé. Vos idées s'enchaînent, se symbolisent et se complètent mieux. Mais je veux vous avertir avec la franchise et l'autorité maternelles que vous voulez bien m'accorder : vous négligez la forme et l'expression, au lieu de les corriger. Je ne vous ai pas fait de reproche pour votre volume imprimé, je n'ai fait d'attention sérieuse qu'à l'inspiration extraordinaire et à l'innéité, l'abondance de talent, qui s'y révèlent à chaque page. Je savais bien

상드 자신은 시를 거의 발표하지 않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시의 표현 기법에 대한 뚜렷한 비평관을 보여준다. 소설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드는 과도하게 장식적이고 화려한 문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상드에게 중요한 것은 표현보다 내용이며, 특히 노동자 시인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민중이라는 독자를 인도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1843년 12월 23일의 편지에서, 상드는 퐁시의 『공사장』에 대한 비평을 이어간다. 퐁시는 그의 작품들에서 민중의 목소리와 민중의 영광을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호평한다. 시인의 영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 형식의 시인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인위적이고 경박한 영광에 불과할 것이므로 내용의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것은 즉, 풍부하고 강렬하고 순수한 형식을 가지고 진실하고 심오하고 보편적이며 고귀한 감정을

---

qu'à chaque page il y avait ou une incorrection de langage ou une métaphore manquant de justesse, ou un trait dont le goût n'était pas pur. (…) Comme jeune homme et poète ardent, vous manquez souvent de goût : cette chose si fine, qu'elle est indéfinissable, que je ne pourrais jamais vous dire en quoi elle consiste, et que, sans elle, pourtant, il n'y a point d'art ni de vraie poésie. Si vous n'en aviez pas du tout, je n'essayerais pas de vous conseiller d'en avoir : ce serait bien inutile ; mais c'est parce que vous en avez beaucoup et grandement que je vous avertis de penser maintenant au triage. Je vous détaillerais bien, vers par vers, vos succès et vos chutes en ce genre. Ainsi, les quatre vers qui terminent l'Échappée de mer sont une comparaison extrêmement hardie, et cependant juste, heureuse et belle. Mais, quand, par un néologisme audacieux, vous faites le verbe zigzaguer, vous ne réussissez qu'à peindre aux yeux vivement une chose matérielle, et, au lieu de l'embellir par l'expression (ce qui est le devoir inexorable de la poésie), vous la rabaissez à un terme vulgaire et incorrect, vous manquez au goût. Vous peignez un spectacle grandiose : ne cessez pas d'être grandiose ; vous voulez dire naïvement une chose naïve : soyez naïf. (…)", *Correspondance,* t. 5, pp. 752-754.

표현해내는 시인만이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감정과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항상 애써야 함을 강조한다 :

>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민중이고, 당신은 민중의 영광이에요. 아 ! 그러니 언제나 민중의 영혼과 정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들의 아름다운 전형, 민주시인, 그리고 6천년 이래로 은밀히 준비되어온 성화의 계시자들의 덕분에 마땅히 있어야 하고, 앞으로 있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려보이세요. (…) 당신의 영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행처럼 하루아침에 스쳐 지나가는, 완전히 인위적이고 경박한 유형이 하나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저 형식의 시인으로 그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당신이 정성을 잘 들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풍부하고 강렬하고 순수한 형식을 가지고 심오하고 보편적이고 고귀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따라서 당신은 형식만큼이나 내용의 시인이 되어야 해요. 감정과 생각의 폭을 넓히려고 항상 애써야 해요.[29]

---

29) "(…) pour votre gloire et pour votre vraie gloire. Et c'est le peuple qui éclate par votre voix, vous êtes sa gloire. Oh, représentez donc toujours son âme et son esprit, non tel qu'il est encore en grande partie, mais tel qu'il doit être, tel qu'il sera, grâce à ses beaux types, à ses poètes, à ses révélateurs du feu sacré qui couve en lui depuis six mille ans, grâce à vous qui êtes le premier de ceux-là aujourd'hui. (…) Car il en est de deux sortes (gloires) : une toute littéraire, frivole et qui passe en deux matins comme la mode. C'est celle que vous auriez seulement si vous n'étiez qu'un poète de forme, mais il en est une autre qui vous est assurée si vous la soignez bien et si vous la respectez religieusement. C'est celle qui est acquise aux poètes dont la forme riche, puissante et pure, sert d'expression à des sentiments vrais, profonds, généreux et nobles. Vous devez donc être un poète de fonds autant que de forme. Vous devez toujours travailler à grandir le sentiment et l'idée.", *Correspondance,* t, 6, pp. 325-327.

상드는 민중시인들의 작품에 대해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보다는 동의하고 칭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상드가 퐁시에게 편지로 보낸 비평담론들은 시인의 작품내용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기능을 주로 보여준다. 1844년 1월 26일의 편지에서 상드는 퐁시에게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각각 본받아야 할 점들에 유의하며 모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

> 천재성은 겸손한 상태에서만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 당신은 훌륭하고 용기 있게 시정했어요. (…) 하지만 당신이 '천둥이 날을 휘두른다'와, 그리고 풍취를 깨뜨리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나 과장된 은유를 고친 것을 못내 아까와 하는 것은 나무래야겠어요. 내가 고전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스스로 그러기를 거부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낭만주의적인 것 역시 거부하고, 아름다움이란 이 양쪽을 잇는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로 당신은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훌륭한 경계선에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위대하고, 진정으로 영감을 받을 때 당신은 낭만주의자인 동시에 고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쪽의 어리석음에도, 다른 한쪽의 부조리에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위고의 생생한 힘과 라신의 장중한 순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모방자가 되지 말고 양쪽을 모두 연마하세요.[30]

---

30) "Le génie ne grandit qu'à la condition d'être modeste. Il est vrai que vous avez corrigé admirablement et avec courage. Mais je vous gronde et je vous blâme de regretter le *tonnerre taille,* et autres âpretés de langage ou métaphores exagérées que le goût proscrit. Je ne me pique pas d'être classique, je m'en défends au contraire. Mais je me défends aussi de l'excès romantique, et crois que le beau est à la limite de l'un et de l'autre. À preuve que vous êtes, sauf quelques cas signalés, à cette limite excellente. Quand vous êtes vraiment grand, vraiment inspiré, vous êtes aussi romantique que possible c'est-à-dire que vous ne tombez ni dans le stupide de l'un, ni dans l'absurde de l'autre, et que vous avez pourtant toutes les forces vives

민중시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상드가 펼친 비평담론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라는 장르에 노동자시인들이 입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비평적 담론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교육적인 차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즉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문단에 알려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점이다. 상드는 부르주아 계층들에게 노동자들의 창작활동에 대해 알리고자 했다. 부르주아 계층의 독자들이 민중시를 읽음으로써 민중의 상황과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열악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드의 목표이기도 했다. 상드가 민중시를 소개하고 비평을 하면서 가졌던 목적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이 시 창작을 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둘째, 민중을 가르치고 정신적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적 목적이다. 셋째, 삶의 고통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이 시를 씀으로써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화의 목적이다. 넷째, 노동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목적이다.

상드는 노동자 시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noble', 'noblesse', 'ennoblir' 란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노동자 시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드의 비평적 담론은 격려나 교훈의 어투를 띤다. 상드는 노동자들이 시를 씀으로써 프롤레타리아들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Il faut que..., Vous ne devez pas..., Il ne faut pas que..." 등,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을 종종 쓰면서 노동자시인들이 시 창작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민중의 지위 회복은 상드의

---

de l'école de Hugo, et toute la pureté majestueuse de l'école de Racine. Cultivez l'une et l'autre, sans être le copiste d'aucune.", *Ibid.,* p. 407.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노동자 시인들의 시를 비평하는 상드의 목적은 무엇보다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계층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상드의 연극 비평

희곡과 연극에 대해서 상드는 주로 뒤마 피스, 플로베르와 비평담론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뒤마 피스와는 희곡을 연극으로 각색하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그의 연극작품에 대한 비평담론을 보내기도 했다. 1855년 10월 26일의 편지에서, 상드는 뒤마 피스에게 그의 희곡 『드미 몽드*Le Demi-monde*』의 연극 공연에 대해서 평한다. 이 작품은 재치와 기지와 관찰력이 돋보이는 걸작이라고 호평하며, 뒤마 피스는 새로운 양식과 현재의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구사하는 극작가들 중 최고라는 칭송을 전한다.[31] 이 장에서 우리는 플로베르의 희곡과 연극 『후보자*Le Candidat*』에 대한 상드의 비평담론을 주로 분석하면서 희곡과 연극에 대한 상드의 비평관을 고찰해볼 것이다.

1874년 4월 3일, 플로베르의 희곡 『후보자』의 공연을 본 후 상드는 소설뿐만 아니라 희곡도 다수 발표한 경력을 가진 선배 작가로서 이제 겨우 희곡 장르에 입문한 후배작가에게 희곡과 연극이 왜 성공하기 쉽지 않은 장르인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

> 우리는 『후보자』를 읽었고 『앙투안』을 다시 한 번 읽을 거예요. 『앙투안』이라면 다시 읽어도 수고로울 게 없어요. 걸작이죠. 『후보자』

31) *George Sand, Correspondance,* 『상드 서간집』 2, 이재희 옮김, 성지사, 1999, p. 306.

> 는 그보다는 덜 만족스러워요. (…) 주제는 실망스럽고 무대에 올리기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연극이란, 실제의 장미나무는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하는 하나의 렌즈예요. 연극에는 색칠한 장미나무가 필요해요. 으뜸가게 아름다운 장미나무도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해요. 채색을 해야 해요. 일종의 속임수죠. 희곡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희곡은 독자들이 읽기에 재미있지가 않아요. 그와는 반대로 슬퍼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웃음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등장인물도 흥미를 주지 못해서 줄거리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희곡을 쓸 수 없다거나 써서는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반대로 나는 당신이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읽는 문학보다는 연극이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어려워요. (…) 당신이 주제에 관해 내게 했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것 역시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지나치게 잘 관찰되고 지나치게 잘 묘사되는 작품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생겨요.[32]

이 편지에서 상드는 두 가지 내용 즉, 연극에서는 지나치게 사실적인 내용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점, 연극으로 공연되어야 하는 희곡은 소설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는 점을 강조한

---

32) "Nous avons lu *Le Candidat* et nous allons relire *Antoine.* Pour celui-ci, je n'en suis pas en peine, c'est un chef-d'œuvre ? Je suis moins contente du *Candidat.* (…) Le sujet est écœurant, trop réel pour la scène et traité avec trop d'amour de la réalité. Le théâtre est un optique où un rosier réel ne fait point d'effet, il y faut un rosier peint. Et encore, un beau rosier de maître n'y ferait pas plus d'effet. Il faut la peinture à la colle, une espèce de tricherie. Et de même pour la pièce. À la lecture la pièce n'est pas gaie. Elle est triste au contraire. C'est si vrai que ça ne fait pas rire, et comme on ne s'intéresse à aucun des personnages, on ne s'intéresse pas à l'action. Ce n'est pas à dire que tu ne puisses pas et ne doive pas faire du théâtre. Je crois au contraire que tu en feras et très bien. C'est difficile, bien plus difficile, cent fois plus difficile que la littérature à lire. (…) Je crains d'après ce que tu m'as dit du sujet, que ce soit encore du trop vrai, du trop bien observé et du trop bien rendu.", *GFGS,* pp. 461-462.

다. 상드는 특히 주제를 다루는 플로베르의 기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한다. 지나치게 주제를 사실적으로 다룰 때 관객들은 연극에 몰두하기 어렵다는 점, 소설과 달리 연극에는 어떤 기교, 장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플로베르의 『후보자』는 1874년 3월 11일에 막이 오르지만, 상드가 염려했던 바대로 관객의 감동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실 작품의 성공 여부보다 플로베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작품의 가치를 어떤 잣대로 평가하느냐라는 것이었다. 『후보자』 때문에 시련을 겪은 플로베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범죄입니다. 성공만이 훌륭함의 잣대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최고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33] 라고 상드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자 상드는, 비평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강조한다. 비평의 역할은 단지 독자와 관객들을 자극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소설에서보다 연극에서는 주제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후보자』에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주제를 택하지 못했던 플로베르에 대한 충고이기도 하다.[34]

1874년 7월 8일의 편지에서 상드는 평소에 잡지의 비평기사를 잘 읽지 않는다고 말하며, 플로베르에게 진지하지 못한 비평에 대해 무관심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에게 그 비평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비평이란 어차피 평론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쓰이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작가는 알 수 없으므로 작가는 비평에서 의미를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상드의 관점이다.

---

33) *Ibid.*, p. 469.
34) *Ibid.*, p. 466.

> 평론가들이 당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험담한다고 당신은 내게 말했지요. *Le Temps*지 밖에 읽지 않는 나로서는 신문을 펼쳐서 평론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읽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비평이 진지하지 못하다면, 혹은 진지할 경우일지라도 나처럼 당신도 비평을 무시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에게 그 비평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난 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평이란, 예술가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항상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월권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이냐 달이냐 하며 논쟁을 벌이지요. 하지만 이런 논쟁은 태양과 달이 각각 자신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결코 가로막지 못하지요.[35]

상드는 성공한 희곡작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수차례 연극무대에 올려본 경험과 연극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희곡이란 장르를 처음으로 시도해본 플로베르에게 유익한 비평을 해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희곡에 대한 상드의 비평관은 첫째, 희곡 작가는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이끄는 소설의 주제와는 달리 무엇보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택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비평의 가치에 대해 상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드도 자신의 희곡을 무대에 올렸을 때

35) "Tu me dis qu'on te trépigne trop. Je ne lis que *Le Temps* et c'est déjà beaucoup pour moi d'ouvrir un journal et de voir de quoi il parle. Tu devrais faire comme moi et ignorer la critique quand elle n'est pas sérieuse et même quand elle l'est. Je n'ai jamais bien vu à quoi elle sert à l'auteur critiqué. La critique part toujours d'un point de vue personnel dont l'artiste ne reconnaît pas l'autorité. C'est à cause de cette usurpation de pouvoirs dans l'ordre intellectuel, que l'on arrive à discuter le soleil et la lune, ce qui ne les empêche nullement de nous montrer leur bonne face tranquille." *Ibid.,* p. 476.

비평가들로부터 항상 호평을 받았던 것은 아니므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비평에 대해 초연하거나 무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관점이다.[36]

6. 나가는 말 : 상드의 서간문에 나타난 비평담론의 유형과 비평관

이상으로 상드의 서간문에서의 문학 비평을 소설, 시, 희곡의 세 장르 별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해본 상드의 서간적 문학비평 담론의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었던 다른 비평가들의 비평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담론이다. 상드는 "비평은 모든 것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37]라고 말할 정도로 신문의 비평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이러한 평가는 상드가 비평과 비평가들에게 대해서 가졌던 혐오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드는 주로 편지에서 비평이나 비평가들을 비판하는 글을 종종 썼다. 더 나아가서 상드는 작가에게 있어서의 비평의 무용성에 대해서 지적한다.[38] 1855년 문학 평론가인 쥘 자냉Jules Janin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드는 비평 대상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악

---

36) 플로베르의 작품『후보자』에 대한 상드의 비평담론은 본 연구자의 다른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상드-플로베르 서간집』을 통해서 본 두 작가의 문학세계 (2)」, op. cit., pp. 168-171 참조.

37) "La critique défait tout et ne fait rien.", Lettre à Flaubert, 28 janvier 1872, *GFGS.*, p. 371.

38) "Je n'ai jamais bien vu à quoi elle sert à l'auteur critiqué. La critique part toujours d'un point de vue personnel dont l'artiste ne reconnaît pas l'autorité.", Lettre à Flaubert, 8 juillet 1874, *Ibid.,* p. 476.

의적인 평가,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 등을 이유로 지적하며 신문이나 잡지의 비평을 비판한다.[39] 공식적인 비평문에 나타나는 독단적인 담론을 피하고 문학작품의 외적인 양상만을 분석하는 비평 방식을 거부했던 상드는 문학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했다. 그것은 여러 방식을 혼합하는 것인데, 즉 독서 후의 사색과 대화 등이다. 이런 점에서 상드는 비평이란 용어보다는 독서란 용어를 선호했다. 상드가 비평 활동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한 작품을 정당화시켜주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작품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며,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드의 비평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바로 독서의 윤리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생성적 담론이다. 이때 편지는 장차 상드가 쓰게 될 비평기사의 내용을 준비하는 사전 텍스트(avant-texte)의 기능을 띤다. 한 예로 『쾌락』에 관해 생트 뵈브에게 보낸 편지를 후에 정식 비평 기사로 발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상드는 신문에 어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평기사를 게재하기 전 대부분의 경우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비평적인 글을 편지로 먼저 보내는 경향이 있다. 상드는 외젠 프로망탱의 *Un été dans le Sahara*를 읽은 후 느낀 점들을 그에게 편지로 보냈다.[40] 2년 후인 1859년, 프로망탱의 *Une année dans le Sahael*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기 전에도 상드는 1858년 12월에 그에게 우선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낸다.[41]

상드가 신문과 잡지에 비평기사를 다수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

39) Lettre à Jules Janin, 1er octobre 1855, *Correspondance,* t. 13, pp. 371-379.
40) Lettre à Eugène Fromentin, 27 mars 1857, *Correspondance,* t. 14, p. 288.
41) Lettre à Eugène Fromentin, 12 décembre 1858, *Correspondance,* t. 15, p. 209.

평소에 다른 작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비평적 글을 자주 썼기 때문이다. 상드를 아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상드의 의견을 묻는 편지를 보낸 경우가 많다. 상드는 예의에서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지인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답을 보냈다. 대표적인 경우는 플로베르의 소설『살람보』에 대한 편지가 있다. 상드는 이 글을 1863년 *La Presse* 지에 "Lettre sur Salammb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며, 이를 계기로 상드와 플로베르는 이후 10여 년 동안 서신을 교환하게 된다. 플로베르가 1869년『감정교육』을 발표한 후 비평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을 때 상드는 다시 한 번 의무감에서 플로베르의 이 작품을 옹호하는 비평을 쓴다. 이 글에서 상드는 오랫동안 문학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던 이론으로부터 소설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변호의 주장을 펼친다. 상드는 이글에서 비평을 하나의 행동으로 규정하며, 편지라는 지면에서 이러한 변호의 행동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고 본다.

상드의 비평관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상드는 문학작품의 외적인 양상만을 분석하는 비평 방식을 거부했다. 즉 미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하며,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문학의 사명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상드는 비평이 작품의 결점과 문제점만을 비판하기보다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를 세상에 알리거나 독자들이 그 작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비평관을 바탕으로,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을 배려하는 관대하고 호의적인 평론을 주로 썼다는 점이다. 상드에게 있어서 비평은 대상 작품에 대한 방어와 설명이므로, 편지 형식은 상드가 선호하는 역할인 충고자와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서간문은 상드에게 비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비평의 실존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상드는 1866년 5월 16일 플로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평이란 서로서로를 변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42] 작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작가들이 문학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에서의 우정도 바로 한 작가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가치를 띨 수 있다는 것이 상드의 관점이다. 이 편지에는 상드의 비평관이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상드가 많은 작가들에게 서신으로 비평담론을 보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 작가가 더욱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기여하고 지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Sand (George), *Correspondance,*『상드 서간집』1, 2, 이재희 옮김, 성지사, 1999.

Gustave Flaubert–George Sand, Correspondance, Texte édité, préfacé et annoté par Alphonse Jacobs, Paris, Flammarion, 1981.

Sand (George), *Correspondance de George Sand,* Textes réunis, classés et annotés par Georges Lubin, Tome I–Tome XXV, Paris, Éditions Garnier Frères, 1964–1991.

_____, *Autour de la table,* Hachette Livre BNF, 2012.

_____, *Oeuvres autobiographiques,* Tome I, II, Paris, Gallimard, 1971.

_____, *Questions d'art et de littérature,* Une édition de Bessis

42) *GFGS*, p. 64.

(Henriette) et Glasgow (Janis), Paris, Éditions Des femmes, 1991.

2. 논문

윤형연, 「『상드-플로베르 서간집』을 통해서 본 두 작가의 문학세계」, 『프랑스문화연구』 제 32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6, pp. 69-119.

_____, 「『상드-플로베르 서간집』을 통해서 본 두 작가의 문학세계 (2)」, 『프랑스학연구』 제 77집, 프랑스학회, 2016, pp. 161-194.

Brix (M.), "Sainte-Beuve, critique de George Sand", in *Nineteenth-century French studies,* Vol.34 No.3-4, 2005, pp. 276-286.

Van Rossum-Guyon (Françoise), "La correspondance de George Sand comme laboratoire de l'écriture" in *Revue des sciences humaines,* 1991, pp. 97-104.

3. 단행본

김현, 『프랑스 비평사 : 근대/현대편』, 문학과 지성사, 2003.

노스럽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2000.

Biagioli (Nicole) et Kaplan (Marijn S), (dir.), *Le travail du genre à travers les échanges épistolaires des écrivains,* Paris, L'Harmattan, 2015.

Bodin (Thierry), (dir.), *George Sand "Lettres d'une vie"*, Paris, Gallimard, 2004.

Didier (Béatrice), *L'écriture-femme,* Paris, PUF, 1981.

_____, *George Sand écrivain, Un grand fleuve d'Amérique,* Paris, PUF, 1998.

Fessier (Guy), *L'Épistolaire,* Paris, PUF, 2003.

Grassi (Marie-Claire), *Lire l'épistolaire,* Paris, Armand Colin, 2005.

Harang (Julien), *L'Épistolaire,* Paris, Hatier, 2002.

Jovicic (Jelena), *L'Intime épistolaire (1850-1900) : genre et pratique culturel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Kallel (Monia), *Flaubert et Sand : Le roman d'une correspondance,* Aix-en-Provence, Presses Universitaire de Provence, 2012.

Mozet (Nicole) (dir.), *George Sand, Une correspondance,* Paris, Christian Pirot, 1994.

Planté (Christine), (dir.), *George Sand critique, 1833-1876,* Éditions Du Lérot, 2007.
_____., *L'Épistolaire, un genre féminin ?*, Paris, Champion, 1998.
Tassel (Alain), (dir.), *Valeurs et correspondance,* Paris, L'Harmattan, 2010.

(**투고일**: 2020. 5. 25 **심사완료일**: 2020. 6. 22 **게재확정일**: 2020. 6. 23)

성명 : 윤형연
소 속: 경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52828)
전자우편: yunhy000@hanmail.net

[Abstract]

La critique littéraire de George Sand dans sa correspondance

Yun, Hyeong-yeon

Le but de cette étude est d'élucider les caractéristiques de la critique littéraire de George Sand en analysant les écrits critiques dans sa correspondance. Pour ce faire, nous avons étudié les quatres sujets comme ci-dessous : la critique publique de Sand, 2. la critique sur le roman de Sand, 3. la critique sur la poésie de Sand, 4. la critique sur la pièce de théâtre de Sand. Nous avons pu attester des deux caractéristiques du discours critique de Sand. Premièrement, il s'agit d'un discours qui réfute le contenu d'un article critique publié par d'autres critiques dans les journaux ou les magazines. Deuxièmement, il s'agit du discours génératif. Dans ce cas, la lettre fonctionne comme un avant-texte qui prépare le contenu de l'article critique qui sera écrit par Sand à l'avenir. Nous avons attesté que la vision de Sand sur la critique litttéraire peut être comprise en trois catégories. Premièrement, Sand se concentre sur le thème de la mission de la littérature, au lieu d'analyser l'œuvre en détail. Deuxièmement, ayant considéré que la critique devrait contribuer à informer l'auteur au monde ou à le faire mieux comprendre au lecteur, Sand écrivait des critiques généreuses et favorables au lieu de ne critiquer que les défauts et les problèmes de l'œuvre. Pour Sand, la critique est la défense et l'explication de l'œvre cible, donc la correspondance lui a permis d'accomplir son rôle de conseiller et de défenseur. Troisièmement, Sand souligne le sens existentiel de la critique. Nous avons vérifié que le but le plus important de la critique épistolaire de Sand était de soutenir et

d'encourager la création des autres artistes.

Key words : George Sand, critique littéraire, correspondance, critique sur le roman, critique sur la poésie, critique sur la pièce du théâtre, type du discours critique, vision de la critique de George Sand